

칼럼

장기채 주필



은발(銀髮)의 현역이 더 행복하다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는다.

청년 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 기퇴직,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은 급기야 노인 일자기와 복지문 제, 교육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 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 은 '100세 시대'로의 세상을 진입 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중에서 향후 가장 빠르 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나라다.

국가연합(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담비율은 2009년 12.7%로 미국(17.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상승속도는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62.9%에 이를 전망이다. 공적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는 법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복지 법 65세, 국민연금법 60세로 규정

한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로 정 의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들쭉 날쭉해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쉽 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로 인식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70세 로 하자는 의견도 많다. 어쨌든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최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69세 인구의 고용률이 41%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연령대의 OECD 평균고용률은 18.5%다. 실 질 은퇴 연령도 한국은 남성 71.4 세 여성 69.9세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은퇴 연령이 낮은 일본(남 69.3, 여 66.7세)보다 더 늦 다. 한국 노인들이 나이먹어서까 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 년퇴직한다는 '사오정'이나 56세 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

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 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 이 생겼는지 금방알아내기 때문에 기계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인정 받고 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 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만저만 일자리를 진전하는 중산 층 노인도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 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 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 가 매우 빨라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된다

유럽 여러나라도 고령화에 따 른 복지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 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다. 풍부한 직업 경력과 인생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노후 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

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 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 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 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 경 력과 인생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 문제, 사회활동의 축적, 노년기의 소득 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고령자(65~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순 천시 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 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는 순천시민의 신뢰를 얻고 '존경받 는 노인'으로 거듭 나는 등 경로 당의 존재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이다. 순천시 노인회의 노노케어 사업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었 으면 한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 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 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 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고 민해야 한다.

社說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해야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 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시행된 다니 기대가 크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비좁은 세 대의 경우 두 집 사이 벽을 허물 어 한집으로 만들고 넓게 쓰게 하 는 등 시설을 개선시켜 임주가 삶 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해 소 및 임주가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에 들어간다. 영구임대주택이 비 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데 따른 것 이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 택은 1만5370호다. 광주도시공사 가 47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870호를 관리한다. 이 가운 데 1만8920호(90.8%)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주거전용면적 24~26㎡(7평가 량)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상당수

다.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당달아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0호에 불과하던 공실은 지난해말 179호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 제를 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비좁은 두 세대 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 는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실 현 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세대 가 벽을 허무는 사업을 진행할 예 정이다.

광주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 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Table with 2 columns: 戶 (Household) and 戶封八縣 (Seal of Eight Provinces). Includes text: 戶 집 호 戶封八縣, 封 봉, 八 여덟 팔, 縣 고을 현. Definition: > 뜻: 한(漢)나라가 천하(天下)를 통일(統)하고 여덟 고을 민호(民戶)를 주어 공신(功臣)을 봉(封)함.

湖南新聞 (Hubei News)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Editor: 이신원, Publisher: 최산순, Editor-in-Chief: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승강기 이용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철저

현재 우리는 아파트 및 초고층 빌딩이 밀집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승강기 이용 중 정전 및 고장으로 인한 승강기 멈춤 사고가 발생하여 승강기에 갇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적, 인적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승강기는 고유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해도 기술적 인 한계를 비롯하여 이용자 과실 등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고유형별로 이용자 과실이

진체 발생건수의 50%가 넘었고 관리부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과실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승강기가 어떤 원 인으로 갑자기 정지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강기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행동을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승강기가 정지했을 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카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뛰는 등 행동

을 한다. 이런 행동은 더 큰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승강기 정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 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 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 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 하여야 한다.

셋째, 내리고 탈 때는 승강기와 건물 바닥이 같은 높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내리고 타야한다.

넷째, 승강기에 갇혀 있을 때 질식할 우려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승강기에는 공기배출 흡입장치가 있어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어 질식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 되는 경우 반드시 구조대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끝으로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승강기 사고발생시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119나 유지 보수 관리업체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행동하여 2차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정형규 / 화순소방서 119구조대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es two women, one in a white cardigan and one in a striped sweater.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If you think about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won't you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Bottom text: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Your small kindness makes the other person smile. It makes the world warmer. It creates a happy Korea.) Logo: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